

내 용 증 명

이 우편물은 2026-07-21
제 3402606002165호에 의하여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함
과천우체국장

대한민국 KOREA

수신 : 코원에너지서비스(주) 대표이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65 (대치동) (우편번호 06332)

발신 : 김 선 남
경기도 과천시 향촌4길 34 (별양동) 101호 (010 - 8523 - 2660)

제목 : 가스요금 청구내역 공개 요구 및 반복적인 가스공급 중단에 대한 이의 제기

1. 본인은 경기도 과천시 소재한 다가구주택의 소유자(한용운의 배우자)로서 총 8세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인 세대를 제외한 7세대는 약 30개월 전부터 공실 상태이며 공실세대는 동파 방지 및 관리목적 외에는 가스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2. 본인은 그동안 귀사가 카카오톡등을 통하여 발송한 가스요금 청구내역을 확인한 후 매월 청구된 요금을 납부하여 왔습니다.
3. 그러나 어느시점부터 귀사는 사용량, 검침일, 요금 산정내역 등 청구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청구서를 제공하지 않은채 금액만 통보하며 계좌이체를 요구하였습니다.
4. 이에 본인은 여러차례 귀사의 1:1 문의를 통하여 청구 근거와 사용내역의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충분한 답변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문의 내용은 삭제된 것으로 확인되어 문의 내역이 정상적으로 보존 관리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5. 본인은 가스요금 정당한 납부를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소비자로서 청구금액의 산정 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청구내역을 요청한 것이며, 이를 확인한후 성실하게 납부할 의사가 있음을 여러 차례 밝혀 왔습니다.
6. 그동안 귀사는 본 건과 관련하여 약 5회에 걸쳐 가스 공급을 중단 하였습니다
현재도 공급이 중단 상태입니다
2026.07.20. 오전에는 정상 사용이 가능하였으나 같은날 오후 7시경 가스가 점화되지 않아 가스공급이 중단된 사실을 확인 하였습니다
정확한 중단 시각은 확인 할수 없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추석을 앞둔 시점에도 약15일간 가스 공급이 중단되었으며
본인은 정상적인 해결을 요청하였음에도 공급 재개가 이루어지지않아 불필요한 불편과 정신적 부담을 겪었습니다.
본인이 수차례 공급재계를 요청하였으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김 선 남